금속노조통신 158호

▣발행일 : 2019년 7월 1일(월) ▣발행인 : 김호규 ▣발행처 : 노조선전홍보실 ▣스마트폰 m.ilabor.org / ▣전화 : 02-2670-9507

금속노조, 쟁의 대책위원회로 전환

129차 중앙위, 임단투 방침 결정 … 5일 일괄 쟁의 조정신청, 8일부터 10일 총파업 찬반투표

금속노조가 2019년 중앙교섭 결렬에 따라 모든 교섭 단위를 쟁의 대책위원회로 전환했다. 노조는 임·단투 세부 투쟁방침도 결정했다.

노조는 7월 1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129차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노조는 중앙위 결정에 따라 전체 조직을 쟁대위로 전환하고 오는 7월 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 쟁의 조정을 신청한다. 사전 쟁의 조정을 신청한 사업장을 제외한 168개 사업장이 동시에 쟁의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노조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2019년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한 조합원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벌인다.

노조 중앙위원들은 이날 중앙위에서 금속노조 청소년 수련관과 연수원 건립에 사용할 시공비 계약금 13억 7,500만 원과 AV, 무대조명, 냉난방기, 승강기, 전관방송설비, 감리 감독비 등에 들어갈 22억 17,666만 원의 특수목적기금 사용을 승인했다.

이날 승인한 산별 부대비용 오천만 원은 금속 산별교섭을 위한 '임단협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에 사용한다. 노조는 DB 시스템을 통해 모은 금속노조 전 사업장 기본 현황과 임금·단체협약 자료는 금속노조 산별 협약과 임금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임단협 DB 시스템은 지부와 사업장 교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노조 중앙위원들은 임·단협 DB 시스템 구축에 대해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특별감사 보고 ▲신분 보장기금 지급 승인 ▲투쟁기금 사용 승인 ▲규정 개정 ▲조합비 정액 납부 한시 승인 ▲조합비 유예 사업장 승인 등을 의결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노조는 오늘부터 중앙쟁대위 체제로 전환한다. 이제 2019년 투쟁의 포문을 열었다. 많은 투쟁 과제가 놓여 있지만, 집중과 선택을 통해 조합원의 의지를 모아 내겠다"라고 밝혔다. 김호규 위원장은 "한다면 한다는 금속노조 투쟁 의지로 승리하는 금속노조를 만들어 가자"라고 조합원들에게 투쟁을 독려하는 말을 전했다.

노조 기획 연극 〈자! 가자〉, 전국 순회공연 중

구조조정 맞선 노동자 투쟁 그려 … 경남지부 등 임단투 전진대회서 공연, 신청 접수 중

금속노조가 2019년 임단투 시기를 맞아 구조조정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의 갈등과 단결을 그린 연극 〈자! 가자〉를 통해 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북돋고 있다.

금속노조는 노조 부산양산지부와 대전충북지부에 이어 지난 6월 28일 경남 창원 KBS 홀에서 세 번째 '2019년 지부 순회 기획 공연'을 펼쳤다. 공연이 끝날 무렵 공연장을 가득 메운 경남지부 조합원들은 출연진들과 함께 '지게차' 율동을 하며 2019년 임단투 승리를 다짐했다.

노조 문화국이 기획한 연극 〈자! 가자〉는 물량 조정을 통해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는 어느 자동차 부품 공장이 배경이다. 노조를 만들다 해고되고 용역 깡패들에게 무참히 폭행당한 경험 때문에 투쟁을 피하는 만수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노조 조직부장 상철 사이의 갈등과 단결을 다룬다.

백일자 노조 문화국장은 이번 공연에 대해 "올해 임단투 요구와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는 업종과 사업장별 구조조정에 관해 조합원들과 함께 생각하고 소통할 방법을 찾다 '연극'이라는 방식을 기획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앞으로 포항지부와 경주지부, 구미지부, 경기지부에서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연을 원하는 지부는 노조로 공연 신청서를 제출하고, 지회는 문화국에 문의해야 한다. 연극 〈자! 가자〉는 노동예술단 '선언'이 총연출을 맡아 극단 '품'과 함께 공연하고 있다.

경남지부, 2019 임단투 승리 결의

공연에 앞서 노조 경남지부는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동법 개악 저지,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법 전면 개정 2019 임단투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열었다.

지부는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와 성동조선해양지회, 현대비앤지스틸지회가 발표한 합동 투쟁사로 대회를 시작했다. 이들 세 개 지회는 노동자 고용을 볼모로 국민혈세를 강탈하는 글로벌지엠 자본과 중국 청산강철 투자 유치가 국내 철강산업에 미칠 영향을 비판했다. 이들 지회는 문재인 정부에 성동조선 회생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홍지욱 노조 경남지부장은 대회사에서 제조산업 재편에 따른 신구조조정과 착취구조 강화에 맞선 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을 강조했다. 홍지욱 지부장은 "단결하지 않고 개별 사업장별로 투쟁하면 다 같이 망한다. 불평등한 착취구조가 뿌리내린 잘못된 세상을 뒤엎는 투쟁으로 나아가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태호 대우조선해양지회 수석부지회장은 투쟁사에서 "대우조선 매각은 조선산업 몰락과 노동자 대학살"이라고 비판했다. 신태호 수석부지회장은 "온전한 산별 전환 완성을 통해 18만 금속노조와 함께 조선산업을 지켜내겠다"라고 결의를 높였다.